천년의 빛 영광 HOTEL THE STAR
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...
TEL. 061) 350-7900

전남매일
www.jndn.com
2021년 9월 27일 월요일
제8717호 (음력 8월 21일)
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(062)720-1000

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
현대아미스(주)
공동주택관리 경비·청소 용역 소방시설관리 소독·저수조청소 전기안전관리 대행

이재명 '과반' 확보…이낙연 광주·전남서 '첫 승'

이 지사, 누적득표율 53.01% 본선 직행 '청신호'
이 전 대표, 배수진 불구 패배…목표수정 불가피
김두관, 경선 후보직 사퇴…"이재명 지지" 선언

'대세 굳히기냐 반전이냐'.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로 압승하며 대세론을 이어갔다.

▶관련기사 3면

특히 이 지사는 광주·전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122표의 간발의 차로 일격을 맞았던 것을 만회하고 1위를 탈환해,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기면서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큼 다가섰다.

이 전 대표는 호남지역 경선에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과반 득표에 실패해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.

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열린 전북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2만2,276표(54.55%)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. 이 전 대표와는 6,561표 차이로 격차를 벌이며 본선 직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.

전북 경선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중요한 포인트였다. 전북 경선은 '호남 1위= 민주당 대권 후보'의 상징성과 함께, 이 지사의 본선 직행 또는 결선투표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. 중도하차한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의 표가 어디로 갔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.

이낙연 전 대표는 1만5,715표(38.48%)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. 광주·전남 경선에서 첫 승을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던 이 전 대표에게는 뼈아픈 패배로 기록될 전망이다.

이어 추미애 전 장관 2,127표(5.21%), 박용진 의원 512표(1.25%), 김두관 의원 208표(0.51%) 순이다. 전북 경선 전체 선거인단 수 7만6,191명 중 4만838명이 투표했으며, 53.60%의 투표율을 기록했다.

누적 득표율도 전북을 더해 이재명 지사가 34만1,858표(53.01%)로 과반 선두를 굳건히 했다. 2위 이낙연 전 대표는 22만2,353표(34.48%)로 집계됐다.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표차는 11만9,505표로 더 벌어졌다. 이어 추미애 전 장관 6만8,362표(10.60%), 박용진 의원 7,946표(1.23%), 김두관 의원 4,411표(0.68%)이 뒤를 이었다.

지난 2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·전남 경선에서는 이 전 대표가 3만3,848표(47.12%)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. 이 지사가 3만3,726표(46.95%)로 2위를 기록했다. 이 전 대표와는 122표 차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.

이어 추미애 전 장관 3,113표(4.33%), 김두관 의원 677표(0.94%), 박용진 의원 471표(0.66%) 순이다.

광주·전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 전 대표는 전국대의원 600표, 권리당원 2만3,211표, 유선전화 37표를 합친 3만3,848표를 득표했다.

2위 이 지사는 전국대의원 588표, 권리당원 3만3,118표, 유선전화 20표로 총 3만3,726표를 기록했다. 이 지사는 광주·전남에서 유일하게 과반수 득표를 달성하지 못했다.

이날 이재명 지사는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"전남, 광주, 전북을 합한 호남 지역 전체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다"며 "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호남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"고 소회를 밝혔다.

이낙연 전 대표는 "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가겠다"면서 "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진정한 마음을 더욱 더 잘 알려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한편,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이날 경선 후보직을 중도 사퇴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했다.

정세균 전 총리에 이은 김 의원의 사퇴로 민주당 경선후보는 이재명,이낙연, 추미애, 박용진 등 4명으로 줄어들었다. /황애란 기자

지난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광주·전남 경선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두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번쩍 들어 화답하고 있다. /김생훈 기자

광주·무안 공항 통합, 군 공항과 연계

국토부, 공항개발계획 고시
도 "포괄적 발전대책 마련해야"

정부가 무안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 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남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.

특히 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

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고시된 국토교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(2021~2025)에는 무안공항을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해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다만 무안·광주공항 통합 이전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과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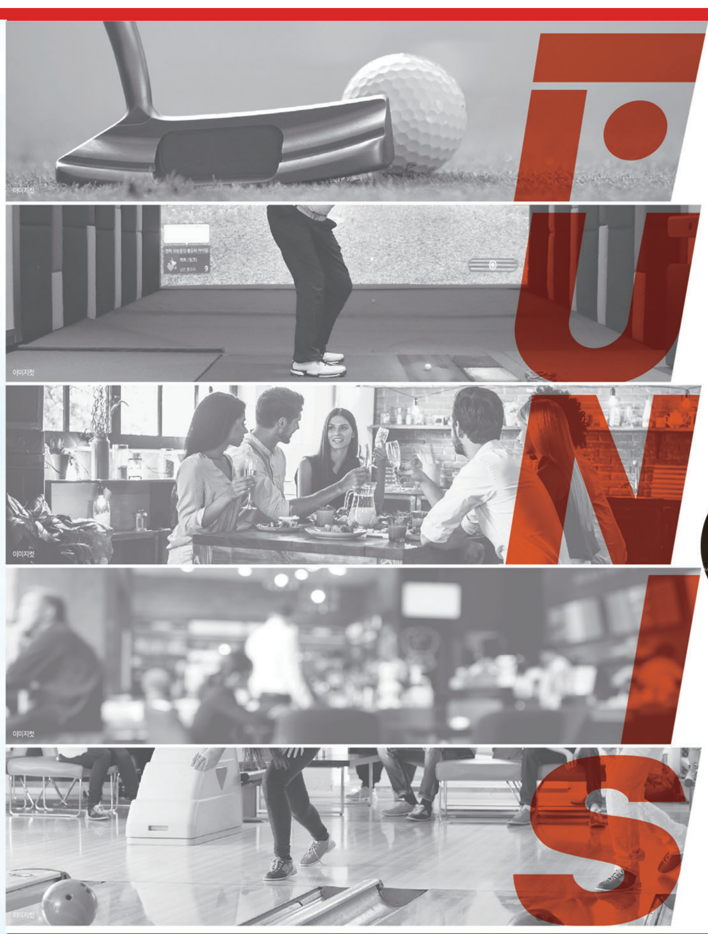
이에 대해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 통합 시기를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심화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.

전남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역 발전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

김산 무안군수도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"군민들이 더 강력하게 군공항 이전 저지에 나설 것"이라며 "이번 계획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키운 잘못된 행정 사례로 남을 것"이라고 우려했다.

향후 전남도는 국무조정실 주관 '범정부 협의체'에서 이전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 민간공항 통합과 별개로 무안공항이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한다. /길용현 기자

상무지구 FUNIS
광주 최대규모!
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!
스크린골프와 볼링, Cafe &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
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!



3F _SCREEN GOLF
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룸 12실과 부대시설

2F _SCREEN GOLF
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룸 11실과 부대시설

Fun it, us
1F _CAFE & LOUNGE
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

B1F _BOWLING
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

FUNIS
062. 374. 8181
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 192(치평동) 구.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